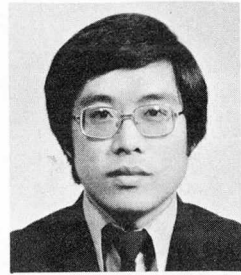


이달의 양돈시황

금년 1/4분기는 약보합세, 2/4분기는 강보합세 예상돼



함 병 은
(본회 지도부)

양돈경기동향

최근 돼지가격의 강한 하락세로 양돈농가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로 보아 '90년도의 양돈 경기도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8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지역의 거래 시황을 보면, 총 경락된 마리수는 16만8천71두로서 전년 같은 기간의 13만1천2백97두보다 3만6천7백74두(28.0%)가 늘어났다. 평균 지육가격은 1천3백90원으로 1년전 동기의 1천8백93원보다 5백3원(26.6%)이 하락되었다. 또한 최고가격은 12월 9일의 1천5백11원, 최저가격은 11월 22일의 1천3백32원을 기록하였다.

인천지역의 총 경락두수는 2만6천17두로 전년동기보다 6천6백92두(34.6%)가 더 거래되었다. 평균 지육가격은 1천3백72원으로 전년동기의 1천9백39원보다 5백67원(29.2%)이 떨어졌으며, 최고가격은 1천5백3원(12월 11일), 최저가격은 1천2백87원(11월 27일)을 나타냈다.

대구지역의 거래시황을 살펴보면, 평균 지육가격은 1천3백38원으로 이중 최고가격은 1천3백97원(12월 9일), 최저가격은 1천2백99원(11월27일)으로 전년동기

의 1천7백97원보다 4백59원(25.5%)이 하락되었다. 총 경락두수는 2만1천9백58두로서 전년 같은 기간의 1만6천7백17두보다 5천2백41두(31.4%)가 증가되었다.

부산지역의 평균 지육가격은 1천3백61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천7백79원보다 4백18원(23.5%)이 하락되었다. 이중 최고시세는 11월 28일의 1천4백12원, 최저시세는 11월 24일의 1천2백82원을 나타냈다. 총 경락 마리수는 5만2천5백60두로서 1년전의 3만7천7백89두보다 1만4천7백71두(39.1%)가 더 경락되었다.

광주지역의 총 경락두수는 8천8백84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천8백68두(47.7%)가 늘어났다. 평균 지육가격은 1천2백69원으로 1년전의 1천7백94원보다 5백25원(29.3%)이 떨어졌다. 이중 최고가격은 12월 11일의 1천4백43원, 최저가격은 11월 23일의 1천1백5원을 나타냈다.

또한 산지의 성돈가격은 7만6천원, 자돈가격은 1만7천원에 거래돼, 전년동기보다 성돈가격은 2만6천원(25.5%), 자돈가격은 1만3천원(43.3%)이 각각 떨어졌다.

한편 '89년도의 돼지가격은 2월이후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7월이후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 '89년 11월까지의 평균 지육가격을 보면, 서

울지역은 1천6백72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백12원(11.23%), 인천지역은 1천6백96원으로 1년전의 1천9백57원보다 2백61원(13.3%)이 각각 하락되었다. 또 대구지역의 지육가격은 1천6백61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백6원(11.0%), 부산지역은 1천6백33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백29원(10.7%), 그리고 광주지역은 1천4백86원으로 전년동기의 1천7백34원보다 2백48원(14.3%)이 각각 떨어졌다.

이와같이 '89년도의 돈가가 하락된 가장 큰 이유는 돼지고기와 대체관계가 가장 큰 수입쇠고기가 저가로 대량 방출되었고, 돈육통조림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돼지고기의 가장 큰 수요처인 국내 육가공산업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5공청산과 노사분규 등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불안으로 돼지고기 수요 계층인 서민들의 가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계속된 돈가하락으로 사육농가들의 조기 출하가 늘어 '89년 10월말 현재 총 도축된 마리수는 7백45만 2천두로서 전년동기의 6백22만2천두보다 1백23만두(19.8%)가 더 도축되었다.

사료생산량도 계속 늘어나 '89년 10월말 현재 3백36만5천톤으로 전년동기보다 50만7천톤(17.7%)이 증가되었다. 이 중 찻먹이용이 65만3천톤, 육성용이 1백80만 4천톤, 모돈용이 88만8천톤을 생산하였다.

한편 돈육통조림 수입은 '89년 10월말 현재 2천1백34톤으로 전년동기의 1천1백32톤보다 1천2톤(88.5%)이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4백50만2천불로 전년동기의 2백9만3천불보다 2백40만9천불(115.1%)이 늘어났다.

또한 서울지역 도매시장에서는 12월 현재 출하 배정은 당일 도축되나 일반출하하는 축공이 2백3일 정도, 우성농역은 3백4일 정도 계류가 되고 있다.

향후 돼지가격 전망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었던 '89년의 돼지값이 '90년까지 계속될 것인가.

〈표〉 '90년도 상반기 돈가전망

구분 월	신 축 증감율(%)	가 격 증감율(%)	가격신축 성 계 수	초 과 공급율(%)	가 격 변동율(%)
1	46.8	-12.3	-0.26	46.14	-12.00
2	42.1	-7.1	-0.17	63.40	-10.78
3	39.7	-10.4	-0.26	39.98	-10.37
4	45.2	-27.9	-0.62	-4.54	2.81
5	52.8	-33.8	-0.64	-6.75	4.32
6	44.9	-22.3	-0.50	2.39	-1.20

우선 '87~'89년의 도축과 가격증감율을 구하여 도축증감율로 가격 증감율을 나누어 얻은 가격신축성 계수가 1월이 -0.26, 2월 -0.17, 3월 -0.26, 4월 -0.62, 5월 -0.64, 6월 -0.50이었다.

한편 '89년의 월별 모돈사료생산량을 갖고 산출된 공급량과 '85~'88년 사이의 도축두수로 산출된 수요량을 갖고 얻은 초과공급율은 1월이 46.14%, 2월 63.40%, 3월 39.98%, 4월 -4.54%, 5월 -6.75%, 6월 2.39%이었다.

이상의 가격신축성 계수와 초과공급율을 곱하면 1월이 -12.00%, 2월 -10.78%, 3월 -10.37%, 4월 2.81%, 5월 4.32%, 6월 -1.20%의 가격변동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0년 상반기 돈가는 '89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1/4분기는 약보합세, 2/4분기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90년의 양돈산업도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상의 추정은 수입쇠고기, 돈육통조림 및 '90년부터 개방되는 소시지 등의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통계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1~3월에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돈육에 대한 항균·항생물질 검사를 전량 실시할 것임을 통보해와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말연시와 구정 등으로 수요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쇠고기의 대량 저가 판매와 돈육통조림의 수입급증 및 소시지 수입으로 12월보다는 강보합세를 보이거나 생산비인 1,800원(지육 kg당)선에는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